

# 고려말 조선초의 상류층 여성 복식문화를 응용한 구체관절인형의상 문화상품 연구

최 정<sup>1\*</sup>

<sup>1</sup>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산업전공

## A Study on the Costume of Ball Jointed Dolls as Cultural Product with Application of Ladies' Costume Culture from Late Goryeo to Early Joseon

Jeong, Choi<sup>1\*</sup>

<sup>1</sup>Dept. of Fashion Design & Apparel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말 조선초의 상류층 여성복식을 고증하여 구체관절인형의상 세트를 시험제작하고 한국 문화상품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고려말 조선초의 상류층 여성복식은 풍성한 실루엣, 원과 명 복식과의 융합, 옛 고려풍의 부활, 발달한 모시 직조기술, 불교문화 복식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13-14C의 문헌과 유물과 회화를 통한 연구자의 고증과 패턴제작 과정을 거쳐 총 8점의 아이템이 외주제작되었다. 각 아이템은 세트로 구성되었으나 소비자가 단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인체와 특성이 다른 구체관절인형의 바디로 인해 부분적으로 다이어트와 작은 고름이 첨가되고 강직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이후로는 기성품 생산을 위한 업체 시스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make trial costumes of ball jointed dolls for promoting the beauty of Korean cultural product with historical research of upper class ladie's costume from late Goryeo to early Joseon, the very unknown period in the Korean costume history.

The ladies' costume from late Goryeo to early Joseon are characterized by their full silhouette, fusion with clothings of Yuan and Ming, revival of early Goryeo styles, well-developed weaving skill of ramie, a showy costume from Buddhist civilization.

After investigation of researcher with literature, painting, and relics in 13-14C, 8 clothing items were outsourced totally. Items were formed as a set concept, but consumer can choose each costume as an single item and can make varied mix also. Dart, small ties, and thick fabrics were used in doll costumes partly because ball jointed doll's body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at of human beings.

Developing research of manufacturing company's system for ready-made product remains t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Key Words** : Costume of ball jointed dolls, Cultural product, Late Goryeo, Early Joseon

### 1. 서론

(明) 문화와의 혼합과정을 겪고 옛 고려풍이 부활하여 조선복식 형성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상류

고려말 조선초는 불교문화의 절정기이자 원(元)과 명

층 여성복식은 정치적 관계 외에도 무역, 문화취향, 직조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일반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0-0005526)

\*교신저자 : 최정(yoolchss@naver.com)

접수일 11년 07월 25일

수정일 (1차 11년 08월 25일, 2차 11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 11년 09월 0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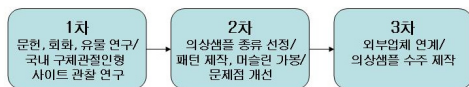
술 등이 융합된 복식문화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시기의 복식에 대한 현존자료와 문헌은 매우 부족하다. 예를 들면 불상에서 발견된 소수의 불복장 유물, 13-14C의 고려불화와 벽화에서 일반인이 등장하는 부분, 조선 초기의 인물화, 원과 명의 유물과 일부 박물관과 개인 소장 유물 등에 적은 흔적만 존재하고 있어, 희귀성과 미적인 우수함을 지녔으나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표는 고려말 조선초의 복식문화와 상류층 여성의상과 복식문화를 고증하고 구체관절인형의상 시제품으로 재현 제작하여, 한국문화상품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첫 단계로 삼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세트로 구상하면, 학습용 자료 및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에 위한 상품의 의미도 지닐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폭 넓은 소비자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반 소비자를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

구체관절인형의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권수현 외(2008)의 연구[1], 최해울(2009)의 연구[2], 황선미(2007)의 연구[3] 등이 있으나, 아직 연구의 역사가 짧고 수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위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고 시각적 효과와 역사적 의미가 중시되는 복식을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한다.

연구범위는 변화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몽골침입 이후의 13C부터 14C까지의 자료로 제한하여 『고려사』, 『고려사절요』, 『원사』, 『박통사』, 『동국이상국집』 등의 고문헌과 더불어 비교적 선명하게 형태와 문양이 남아있는 회화자료 및 유물을 중심자료로 선택하였다. 자료가 적은 시대의 고증이므로 해당시기의 주변국 복식문화 자료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주요 구체관절인형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고전복식상품들의 특성과 문제점을 참고하였다.

[표 1] 연구방법과 과정  
[Table 1] The process & methods of the study



연구방법은 1차로 문헌과 자료수집 및 국내 구체관절인형 사이트 관찰을 중심으로 하였다. 샘플제작이 목적이므로 형태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복식자료를 수집하고, 제품 현황과 소비자의 의견을 관찰하는 동시에, 의상제작에 지식이 있는 패션전문인 중 구체관절인형 오퍼와 구체관절인형카페 운영자와의 인터뷰도 일부 참고하였다.

2차는 의상 선정과 패턴 제작 연구로서, 연구자가 인형의 바디에 맞는 패턴 제작과 머슬린 가봉을 수행하였다. 3차는 외부제작업체와 상의하여 제작에 적합한 재료를 최종 선택한 후 의상샘플을 수주 제작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들은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이고 외부업체와의 연계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1.1 연구의 시대적 배경과 의미

고려 후기의 불교회화와 불복장 식물의 문양은 매우 섬세하고 유려하다. 한편 여성용 철릭과 답호, 단독문양이 점점이 엇갈리는 탐자(答子) 직물, 무릎의 슬란 장식과 어깨부터 소매까지 이어지는 보리(寶里) 장식도 고려로 도입되었고, 이는 부흥기의 원(元)에서 도입된 몽골문물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결과였다.

그러나 고려말 공민왕의 개혁정치 이후 ‘오랑캐의 복식(胡服)’을 금하고 친명(親明) 정책과 옛 고려풍을 되찾으려는 노력[4]이 일어났고, 고려 말의 여성복식은 명 복식과 일부 혼합되고 이전의 모습도 되찾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12C의 『고려도경』과 고려말 『관경변상서품도』에 모두 묘사되었던 비대칭 머리 모양, 여인용 의상의 풍성한 실루엣 등이며, 원 궁중에 전파되었던 고려양도 해당시기 여성복식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고려사절요』에는 물들이거나 무늬를 넣은 모시(毛施)가 고려 말에 선호되었던 점과, 공양왕 재위기의 백성들이 수입 사라능단을 좋아하던 사치현상[5]도 기록되었다.

고려말 조선초는 불교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정교해진 모시 직조 기술을 가졌던 우리나라 복식문화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몽골복식과 고려복식과 명(明)복식이 융합을 이루어, 특유의 아름다움을 가진 복식을 탄생시켰다.

### 1.2 구체관절인형의상 시장의 특성 및 연구 모델 선정

구체관절인형(球體關節人形: Ball Jointed Doll)은 몸의 각 부분을 등근 구(球)로 연결한 인형의 총칭이며, 특히 섬세하게 미화된 우레탄 인형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인형은 신장과 연령에 따라 20cm, 40cm, 60cm, 70cm 급으로 나뉘어지며, 자외선에 닿으면 색상이 황변하는 등 오퍼의 주의를 필요한 전문 키덜트(kidult) 용품이어서 단가가 높은 고증인형의상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이기도 하다.[6] 그러나 대부분의 고전인형의상은 표 2처럼 고증자료가 많은 조선 후기 복식과 기녀복식, 퓨전 의상, 드라마 캐릭터 이미지 한복이고 세트 위주로 제작되며, 단품 위주인 기모노에 비해 제품 수도 적다. 또한 고전인형의상은 그림 1[7]처럼 인형이 포함된 풀 세트 한

[표 2] 국내 주요 구체관절인형 회사 웹사이트의 여성용 고전의상 제품 현황(2011년 7월까지)

[Table 2] Korean traditional female costume products of Korean major ball jointed dolls & costume company website (until July, 2011)

회사명	구성	의상 종류(제품 수)	시대	비고
돌모아(Dollmore)	세트(일반)	치마, 저고리 (7점)	조선 후기	인형 미포함
	세트(일반)	당의, 치마 (2점)	조선 후기	인형 미포함
	세트(일반)	기녀 한복 (4점)	조선 후기	인형 미포함
	세트(한정)	황후 원삼 세트 (1점)	조선 후기(캐릭터)	인형 포함
	세트(한정)	신라 궁중복식 세트 (1점)	신라(캐릭터)	인형 포함
	세트(한정)	오리엔탈 퓨전복식 (4점)	퓨전	인형 포함(1),미포함(3)
비고: 단품(일반) 남녀공용 일본식 기모노의 수가 한복 세트 제품의 수보다 많음(58점).				
루츠(Luts)	세트(일반)	치마, 저고리, 배자 (2점)	조선 후기	인형 미포함. 주방실 인형한복 제휴 제품 포함.
	세트(일반)	기녀 한복 (4점)	조선 후기	
	세트(일반)	치마, 저고리, 반비 (2점)	백제 후기(캐릭터)	
이플하우스 (Iple house)	세트(한정)	치마, 저고리 (1점)	조선 후기	인형 미포함
	세트(한정)	기녀 한복 (1점)	조선 후기	인형 미포함
	세트(한정)	오리엔탈 퓨전복식 (2점)	퓨전	인형 미포함
주방실 인형한복 (Dollhanbok)	세트(일반)	치마 저고리 예복 (54점)	조선 중기/후기	인형은 판매하지 않음. 주문 제작 제품.
	세트(일반)	개량한복 드레스 (4점)	퓨전	
	세트(일반)	기녀 한복 (16점)	조선 후기	
	세트(일반)	황후 당의 세트 (3점)	조선 후기(캐릭터)	
	세트(일반)	궁중 소의복 세트 (1점)	조선 중기	
	세트(일반)	노국공주 이미지 의상 (1점)	고려 후기(캐릭터)	
세트(일반)	선화공주 이미지 의상 (3점)	백제 후기(캐릭터)		
비교적 제품이 많은 회사의 기성품 현황으로, 여성용 한복이 없거나 1점 이하 또는 판매용이 아닌 샵은 제외함.				

정판(Limited Edition)으로 제시되기도 하며, 이런 경우에는 지 않는다.  
는 50-60만원 대인 고가의 인형을 제외하고 의상만 구입  
하려는 소비자의 문의도 종종 나타났다.



[그림 1] 돌모아, “Mortal Love”  
[Fig. 1] Dollmore, “Mortal Love” <http://www.dollmore.com>

그림 2[8]는 이플하우스(Iple house) 사의 한정판 기녀 한복으로, 한 세트의 가격이 약 16만원 선이며 인형이 포함되지 않아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제품의 예이다.

그러나 시중제품 중 고려시대의 여성용 구체관절인형 의상은 루츠(Lut) 사에 위탁되었던 그림 3[9]의 “노국공주” 외에는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캐릭터 이미지를 응용 디자인한 작품으로 학술고증을 중시한 자료에는 해당되



[그림 2] 이플하우스, “이화”  
[Fig. 2] Iplehouse, “Ewha” <http://www.iplehouse.com>



[그림 3] 주방실, “노국공주”  
[Fig. 3] Bang Sil Joo, “Princess Noguk”  
<http://www.dollhanbok.com>

본 연구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 사이트들을 관찰한 결과, 상당수의 오너들이 ‘70cm 급 성인 타입 인형은 섬세하지만 너무 크고 무겁다.’는 부담감을 표시했다. 반면 40cm 이하의 어린이 타입 인형은 크기가 작아 의상을 세밀하게 제작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성숙한 체형이며 보관도 쉽고 동양적인 반개안(半開眼)인 60cm 급의 청소년 타입을 모델로 선택하였다. 표 3은 본 연구의 모델인 이플하우스(Iple house)사의 ‘젠틀 프리지아’ 타입 인형과, 구체관절인형 사이즈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일본 보크스(Volks)사 인형의 간략한 사이즈 비교이다.

## 2. 해당시기 상류층 여성복식의 특징과 의상 아이템 선정

13-14C의 고려말 조선초 및 주변국의 상류층 여성복식과 관련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형의상의 고증제작이므로, 시대적 특성이 강하고 형태가 비교적 분명하여 의상 제작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자료를 위주로 관찰하였다. 그림 4[10]의 『미륵하생경변상도』를 비롯한 고려불화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듯한 형식으로 그려진 신성한 인물은 제외하고, 당시의 복식으로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공양인의 의복 형태에 중점을 두었다.

### 2.1 겹옷

[고려사] 132권 열전 제 45에는 신돈이 뇌물을 바치려 는 부녀들에게 별실이 좁다고 하며 겹옷(表衣)을 벗고 단삼(短衫)만 입고 들어오도록[11] 하는 대목이 있다. 즉, 당시의 상류층 여인들이 표의와 단삼을 모두 착용하면 상당한 부피감이 있었던 것이다. 12세기의 『고려도경』 20권의 부인(婦人) 편에서도 고려여인들이 ‘남자처럼 넉넉한 백저포(白紵袍) 및 황견(黃絹) 치마와 7-8필까지 천을 이은 풍성한 치마를 입었다’[12]고 한다. 이 부피감 있는 차림새는 고려여인복식의 중요한 특징이며, 원의 영향을 벗어나던 공민왕 재위기의 복식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표 3] 보크스와 이플하우스의 60cm 급 여성 인형 신체 사이즈 (2011년 6월)  
[Table 3] 60cm female doll's body size of Volks and Iplehouse (June, 2011)

회사	인형모델명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가발사이즈 (헤드둘레)	안구사이즈
Volks	SD 13	59.4cm	24cm	19.7cm	9.5-10inch	16-18mm
Iple house	Y. I. D Basic (젠틀 프리지아 포함)	59cm	24.2cm	17cm	8.5inch	16mm



[그림 4] 미륵하생경변상도, 14C, 일본 지은원 소장  
[Fig. 4] Mirukhaseong kyoungbyeonsangdo (part), 14C, Chionin, Japan

이 시기의 회화를 보면 귀부인의 정장으로는 소매가 넓은 대수포(大袖袍)와 착수포(窄袖袍)를 겹에 입었고, 포의 앞여밈은 교임(交衽), 대금(對衿), 단령(團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충혜왕 재위기(1344년)의 이제현의 글에는 “...전에는 공경(公卿)들이 무늬없는 옷을 비단옷처럼 입었고 충숙왕은 ‘금실로 수놓은 옷과 새깃을 꽂은 갓은 우리 옛 법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요즘은 사치가 매우 심하다...”[13]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고려말 상류층 사이에서 무늬있는 의복이 유행했음을 알려주며, 고려 수덕사 불복장 유물에도 그림 5[14]처럼 문양부분만 금실 또는 은실로 짠 장금(粧金) 형식과 단독문양이 엇갈려 배치된 탐자 형식[15]이 어우러진 능(綾) 직물이 몇 점 남아 있다.



[그림 5] 청색소화직은문능, 고려, 수덕사 소장  
[Fig. 5] silver-weaved blue silk with flower patterns, Goryeo, Suduksa



한편 조선 초중기의 회화용 문헌 『박통사언해』에는 육홍색(肉紅色)의 여성용 담호가 언급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활동적인 철릭과 함께 입혀지던 몽골식 의복이어서, 여성들이 몽골 스타일의 편리한 의상도 착용했음을 짐작케 한다.

## 2.2 반비

『고려사절요』를 보면 왕릉사에서 정장(衣冠)을 갖춘 관리들과 달리 왕과 앉아있던 신돈은 반비(半臂)를 입고 있었다[16]고 하여, 반비는 간편한 남성용 평상예복처럼 묘사되었다. 원 말기의 『궁중사(宮中詞)』에서는 원의 궁의(宮衣)로 입혀지던 아랫배를 덮는 길이에 방령(方領)인 반비를 고려양이라고 표현했는데(...宮衣新尙高麗樣方領過腰半臂裁...)[17], 이는 고려 출신인 기 황후의 정책으로 고려인 궁녀들과 고려복식이 원 궁중에 널리 퍼졌던 무렵의 유행이었다.



[그림 6] 방령대금협의를, 명, 북경 정릉 출토  
[Fig. 6] Narrow jacket with square neck-line and parallel opening, Ming, Ding ling, Beijing, China



[그림 7] 반비, 원, 중국 사주박물관소장  
[Fig. 7] Jacket with half sleeves, Yuan, Collection of China National Silk Museum

따라서 고려말 상류층 여성도 반비를 즐겨 입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원과 고려의 유물에서 아랫배에 닿는 길이의 방령반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북경 정릉에서 출토된 그림 6[18]의 명 효정황후(孝靖皇后) 유물과 조선 중기 이용해 장군의 유물 중에 짧은 방령 겹옷이 남아있다. 고려말의 여성용 방령반비를 제작할 때는 남성

용일 가능성이 많은 이용해 장군의 유물보다는, 효정황후 유물의 오픈형 태와 함께 원 유물 중 보편적인 반비인 그림 7[19]의 대금(對襟) 반비 형태를 함께 참고하려고 한다.

## 2.3 저고리

그림 8[20]의 여성용 단삼(短衫)은 명의 유물이다. 당 코깃이 달린 교입이며 흰 동정과 거들지가 부착되었고, 가슴에는 직금 운견(織金雲肩), 어깨와 소매에는 직금 봉황문이 있으며[21], 소매가 끝동이 좁은 곡배레이고 겨드랑이에 트임이 있어서 조선의 궁중복식인 당의(唐衣)와 매우 흡사하다.



[그림 8] 암록색 직금 봉황 단삼, 명, 산둥곡부공자박물관 소장

[Fig. 8] Dark green short jacket with golden-weaved phoenix patterns, Ming, Shandong Qufukongzi Museum



[그림 9] 운견이 짜여진 여성용 포, 원, 개인소장

[Fig. 9] Female robe with cloud collar pattern and wide sleeves, Yuan, Private collection

원의 귀부인 복식유물에도 그림 9[22]처럼 곡배래 소매이며 끝동이 좁은 예복이 있으나, 이는 길이가 길고 원 건국 이전에 형성된 몽골 스타일이다. 길이가 짧은 저고리 자체는 아랫배를 덮는 방령반비와 함께 원 몽골보다는 고려 스타일에 더 가깝다는 점[23], 위의 단삼의 문양이 원 귀족용 포의 운견 및 보리(寶里)와 비슷한 점을 보

면, 원과 고려의 여성복식이 한족복식과 혼합되어 명 복식과 조선 복식에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또다른 예시에서는 그림 10[24]의 『하연부부 초상』의 하연부인처럼 높은 허리선의 치마 안에 넣어입을 때는 짧은 저고리, 그림 11[25]의 『조반부부 초상』의 조반부인처럼 밖으로 꺼내 입을 때는 긴 저고리가 나타나며, 두 부인 모두 직령 직배래 저고리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 박익(朴翊, 1332 - 1398) 묘의 벽화에도 조반부인처럼 아랫배에 닿는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그려져 있으나 포는 착용하지 않았다.



[그림 10] 하연부부 초상, 조선 후기, 백산서원 타진사 소장 [Fig. 10] The portrait of Hayeon couple, late Joseon, tajinsa, Baiksan seowon



[그림 11] 조반부부 초상, 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Fig. 11] The portrait of Joban couple, late Joseon, National Museum of Korea

## 2.4 치마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여성 공양인은 붉은 바탕에 화문이 제직된 치마를 입었고, 그림 10의 『하연부부 초상』에는 흰 치마, 그림 11의 『조반부부 초상』에는 연한 옥색 치마가 묘사되었다.

단령 관복차림의 배우자와 함께 그려진 부인들의 복식은 예복차림으로 볼 수 있다. 이 초상화들은 후대에 복원된 작품들이지만 고려말 조선초와 관련된 드문 여성복식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려말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을 보면 ‘홍군(紅裙)’[26]이란 용어로 기녀를 표현하는 정형화된 묘사가 많으며, ‘흰 갈포 치마를 입은 농민여인(田婦白葛裙)’[27]이란 표현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녀가 아닌 상류층 고려말 여성의 복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를 확실히 나타내고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붉은색, 흰색 또는 거친 재질은 피했다. 그러나 위의 부인들의 초상에 연한 색의 치마가 묘사되었고 고려말에 원의 영향에서 벗어나 옛 풍습을 찾으려는 노력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려도경』에서 대표적인 고려여인의 의복으로 기록한 황견 치마를 샘플의상으로 선택하였다.

## 2.5 직물

고려 말에는 여러가지 직물이 사용되었고 불복장 유행에도 금직 능(綾)이 상당수 남아 있으나, 원에서 끊임없이 요구한 고려 특산품은 무늬를 넣은 모시였다. 『고려사절요』를 보면 충숙왕 재위기부터 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저포(紋苧布)를 공물로 요구하다 공민왕 4년(1355년)에야 면제되었다. 최규순 외[28]는 정교한 고려모시가 원에 도입되면서 모시(毛施)의 모(毛)를 취하고 어미 자(子)가 붙어 『월사』에서 원 궁중 연회복인 질손의 재료로 언급된 ‘모자(毛子)’라고 불리웠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저포는 고려말의 대표적 특산물로서 연구에 응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시판직물 중 고려문양이 짜여진 문저포를 구하기는 어려웠으며, 직물제작부터 의뢰하면 단가가 매우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저포 대신 비슷한 태를 지녔고 안료를 칠하기 쉬운 직물에 문양을 그리거나, 고려 불복장 직물처럼 문양부분만 돌아가며 금실로 짠 장금(粧金) 직물과 유사한 시판직물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시기의 대표적인 직물 색상으로는 원의 연회복 질손의 재료로도 쓰인 고려의 아청(鴉靑)색, 고려불화의 문양에 빈번히 묘사된 금색, 『계림유사』 염채조에서 고려의 염색기술을 칭찬하며 언급한 자색(紫色)과 홍색(紅色)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2.6 의상 아이템 선정 시의 주의점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여성의상들은 대수포와 높은 허리선의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된 예복, 요군(腰裙)을 갖춘 예복, 아랫배에 닿는 저고리와 치마에 반비를 덧입은 차림, 당의(唐衣) 형태의 저고리와 치마 차림, 철릭과 답호로 구성된 활동적인 복장으로 요약된다.

[표 4] 인형의상의 착용 조합 예

[Table 4] Example of doll costume combination by shapes

용도	의상 아이템 조합	비고
기본복식	직배래/곡배래 저고리, 치마, 속곳	상하의+치마를 부풀리는 속곳
평상예복(1)	곡배래 저고리, 방령반비, 치마, 속곳	방령반비에 중점을 둠
평상예복(2)	직배래 저고리, 방령반비, 치마, 속곳	
정장예복(1)	직배래 대금포, 직배래 저고리, 치마, 속곳	고려불화 공양인 부분과
정장예복(2)	대수포, 직배래/곡배래 저고리, 치마, 요근, 속곳	14세기 부부상 복식에 중점을 둠
단품	위의 의상 중 인형오너의 필요에 따라 선택	개별 선택 가능

[표 5] 샘플 인형의상 제작 과정(좌→우 순서로)

[Table 5] Process for making doll costume samples (from left to right)

의상 선정	가봉 재료와 방식	문제점	개선사항	제조업체 의견	직물 선정
대수포	머슬린	등,허리가 들뜸. 40cm의 소매폭이 좁게 느껴짐.	뒤허리를 0.5cm 후림. 소매폭을 45cm로 늘림.	금색 안료를 고착시키기 쉬운 짙은 색의 치밀한 조직 필요.	두록색 옥사
요근	얇은 한지	32cm의 길이가 짧게 느껴짐.	길이를 3cm 늘림.	시중에 두터운 고려풍 능 직물이 드물어 단 직물로 대체.	진홍색 화문단
직배래 대금포	머슬린	등,허리가 들뜸. 진동이 좁음.	뒤허리를 0.5cm 후림. 진동을 늘림.	단독 탐자문양의 배치가 심하게 어긋날 수 있으므로 직물을 넉넉하게 요구.	아청색 장금 탐자 스타일 직물, 금직
방령반비	머슬린	저고리와 착용하면 방령 고대가 좁음. 앞이 잘 여머지지 않음.	고대를 0.3cm 늘림. 고름 추가.	방령이 작으므로 이중깃 제작이 어려워 스티치로 표현.	진홍색 사, 화문단
직배래 저고리	곡배래 저고리 가봉 변형	-	-	-	연황색 화문사
곡배래 저고리	머슬린	소매가 다소 김.	소매를 2cm 줄임.	-	연청색 화문사
치마	형태가 유사한 다른 머슬린 작품을 착용	180cm의 밑단둘레가 너무 넓어 착용 불편.	밑단둘레를 160cm로 줄임.	안감을 넣지 않고 솔기를 곱솔처리하면 허리주름의 과도한 부피감을 줄일 수 있음.	황색 화조견
속곳	얇은 한지(일반 속곳 패턴을 변형)	허리 둘레가 넓음.	허리둘레를 1cm 줄임.	-	백견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그림 4, 10, 11등에 나타난 고려말 조선초 여성의 머리모양을 응용한 인형가발도 상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전가발의 제작방법이 까다로워 수수 의뢰가 어려우므로,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개발된 의상과 시판가발의 조합도 가능해야 한다.

참고로 2010년 11월에 구체관절인형 오너인 패션 전공인들과의 인터뷰를 가진 결과, 금빛 문양이 포함된 개체를 선호하는 경향과 5만원 이하의 저렴한 단품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앞의 표 2의 관찰결과에서도 기성 한복제품 중 단품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권수현 외(2008)의 연구에서 1-5만원대의 의상을 주로 구입하는 20대 여성 소비자들이 구체관절인형 한복 구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싼 가격'과 '다양하지 않고 한정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났다.[29] 따라서 문화상품의 활용성을 염두에 둔다면, 세트와 단품 선택이 모두 가능하여 일반 소비자도 적은 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의상 구성이 필요하다.

### 3. 선정된 의상 아이템과 제작 방식

위의 과정과 고찰을 거쳐 선정된 샘플의상은 총 8점이다. 연구자가 8점의 의상을 고증하고 머슬린 가봉을 거쳐 패턴을 완성한 후, 전문제작업체에 수주를 의뢰하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샘플 의상은 문화상품으로서 가능한 폭넓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증을 중시한 세트로 구성하여 취미상품 외에도 전시자료와 학습자료를 겸하도록 하였으나, 실용적인 제품을 원하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 각각을 단품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또한 표 4와 같이 조합에 따라 정장예복과 평상예복을 모두 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상을 포함시켜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기성제품과 유사하거나, 다른 아이템과 조합시키기 어렵거나, 시대적 특성은 반영하지만 고려복식으로서의 독자성이 약하다고 판단된 아이템은 가급적 제외하였다.

샘플의 색상은 고려 말의 특징인 금빛 문양, 아청색, 홍색, 황색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되었다.

재질은 고려 말을 대표하는 문저포의 태를 중시하되 이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우므로 옥사와 사를 이용하였고, 두터운 직물로는 고려 말 불복장 직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능(綾)이 적합하나, 역시 시판직물의 종류가 많지 않아 제조업체의 조언을 얻어 단(緞)으로 대체하였다.

표 5는 제작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가봉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책, 제조업체의 의견과 선택된 의상 샘플 재료를 요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인형에게 인체용 의상을 신장비율(약 2.5 : 1)로만 축소하여 착용시키면 잘 맞지 않는다는 점과, 연구자가 선택했던 직물이 안료가 잘 고착되지 않는 직물이어서 제조업체의 제작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고려 말의 평면적이고 넉넉한 의상은 비교적 인형에게 입히기 쉽다. 그러나 구체관절인형의 바디는 인체보다 길고 볼륨이 강하며, 인체처럼 부드럽지 않아 옷이 자연스럽게 밀착되지 않고, 도구 없이 인형을 자립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길이를 늘리고 약간의 다이어트와 고름을 첨가하고, 다리 사이를 고정하는 U자형 돌 스탠드를 이용해야 한다.

#### 4.1 대수포(大袖袍)

그림 4의 『미륵하생경변상도』 여성 공양인은 넓은 소매의 포를 입고 허리 장식물인 요군을 맨 차림으로, 왕을 보좌하여 공물을 바치기 위한 정장예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공양인의 포의 앞여밈은 잘 보이지 않으나 고려유물 중 해인사에 소장된 2점의 포는 모두 끈은 깃의 교차여밈이며[30], 허리에 요군을 안정감 있게 두르려면 이런 여밈이 가장 적합하다.



[그림 12] 곡배래 저고리, 치마 가봉 예 (좌), 포 등부분의 들뜸현상(우)(제작 & 촬영: 연구자)

[Fig. 12] Example of basting for jeogori & chima(left), Loosing of gown's centerback(right)(Production & photo by researcher)

생체근육이 없는 구체관절인형에게 평면으로 재단된 포를 입히면 그림 12처럼 등과 허리 부분의 직물이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뒤중심 허리에 적은 분량의 후림 부분 또는 다이어트를 넣는 입체재단 방식이 부분적으로 이용되었다.

시대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 13처럼 인형의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곁에 착용하는 대수포에 고려불화에서 가장 빈번히 묘사된 금빛 단독문양인 당초원문(唐草圓紋)을 탐자 스타일로 배치했으며, 외주 제작자가 수공으로 문양을 그려 희소성을 높였다. 이는 고려불화의 특성과 몽골식 직물인 탐자의 특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의상의 의미를 지닌다.

#### 4.2 요군(腰裙)

4.1의 대수포와 같이 착용하는 정장예복용 허리 장식물이다.

착용시키기 편리하도록 그림 13처럼 한 개의 허리끈에 두 장을 연결하여 옆에서 끈을 묶으면 요군이 앞뒤로 늘어지게 제작되었다. 대수포에서처럼 고려불화에 나타난 등근 소화문(小花紋)을 안료로 그려서 희소성과 심미성을 중시한 제품이다.

#### 4.3 직배래 대금포(對衿袍)

그림 11의 조반부인 복식은 하연부인과 달리 고려 말의 특성인 아랫배를 덮는 길이의 저고리 위에 앞여밈이 평행이며 소매가 좁은 대금포를 입은 간단한 차림새이다. 예복으로 보이지만 의식용 복식보다 보편적으로 입혀진 듯 하며 시대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판단되어, 대수포와 구분되는 간편한 정장예복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3의 인형용 대금포는 등근 문양 부분만을 금실로 짜서 탐자 형식으로 배치한 시판직물을 몸판 부분에 사용했으며, 깃 부분에는 인형의상 정장으로서의 화사함을 더하기 위해 직금 직물을 이용하였다.

#### 4.4 방령반비(方領半臂)

원 말기의 궁중에서 유행한 고려양 중 유일하게 형태가 언급된 것이 아랫배에 닿는 길이의 방령반비이며, 이 옷은 평상예복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아직 고려의 실물유물로는 이런 방령 반비가 발견된 예가 없어, 명 효정 황후의 방령대금(方領對襟) 협의와 원의 반비 형태를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그림 13와 같은 인형용 방령반비를 제작하였다. 방령과 목둘레와 여밈부분에는 몸판 부분보다 뽀뽀한 재질의 사를 이용하고, 이중깃은 이어 만드는 대신 스티치 기법으로 표현했으며, 매듭단추 대신 고름을 부착했는데, 이는 작은 인형의상에 부착된 네모난 방령의 형태를 확실히 유지하고 입히기 쉽게 고안한 것이다.





[그림 13] 인형의상 part 1: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수포, 요균, 직배래 대금포, 방령반비 (디자인: 연구자)

[Fig 13] Doll costume part 1:(from left top to clockwise) gown with wide sleeves, apron, gown with parallel opening and rectangle sleeves, jacket with half sleeves and square neckline (Design by researcher)



[그림 14] 인형의상 part 2: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직배래 저고리, 곡배래 저고리, 치마, 속곳 (디자인: 연구자)

[Fig. 14] Doll costume part 2: (from left top to clockwise) jeogori with rect angle sleeves, jeogori with round sleeves, skirt, underwear (Design & photo by researcher)

#### 4.5 직배래 저고리

고려말의 저고리는 온양박물관에 3점, 해인사에 4점 가량이 남아 있으며 길이는 57-84cm 가량으로 다양하지만[31], 공통적으로 교임의 목둘레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인형용 직배래 저고리는 위 유물들의 형태를 참고하여 그림 14처럼 제작되었다. 그림 10 또는 그림 4처럼 대수포와 착용하는 정장예복 아이템으로서 치마 안에 넣어 입을 단의(短衣) 스타일이지만, 길이를 늘려 그림 11의 조반부인의 저고리로도 착용할 수 있게 구상되었다.

구체관절인형의 연결부위는 근육이 없는 둥근 구 형태

여서, 평면재단 의상을 입히면 진동둘레가 필요이상으로 접혀들어가는 현상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고리는 비교적 두터운 견직물로 제작하였다.

#### 4.6 곡배래 저고리

방령반비와 함께 평상예복 세트에 속하는 아이템이다. 원의 유물 중에 길이가 아랫배에 닿는 여성용 반비는 길이가 비슷한 저고리와 입혀지는 것이었다. 앞서 밝혔듯 명대의 복식유물 중에 조선의 당의(唐衣)와 비슷한 단삼은 고려양의 흔적이 남은 명대복식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방령반비와 조화를 이루는 복식으로



[그림 15] 인형의상 착용 예시: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기본복식, 평상예복(1), 정장예복(1), 정장예복(2)(디자이너: 연구자)

[Fig. 15] Example to wear doll costume: (from left top to clockwise) Basic wear, Daily formalwear(1), Official formalwear(1), Official formalwear(2), (Design & photo by researcher)

선택하였다.

4-5의 저고리와 같은 이유로 비교적 두터운 시판직물을 이용했으며, 그림 14처럼 형태는 명의 단삼과 조선의 당의를 참고했으나, 평상에복으로서의 실용성을 고려하여 세탁하거나 인형에 착용시킬 때 마찰되어 쉽게 벗겨지는 금박은 생략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 4.7 치마

그림 14처럼 황색 견직물로 7폭의 너비로 제작되었으며, 『고려도경』의 기록과 『고려사절요』의 신돈 일화를 참조하여 넓은 형태로 구상한 것이다. 길이에 여유를 두어 제작했으므로, 한 점의 치마로 허리에 매어 입는 스타일과 가슴 밑에 매어 입는 스타일을 모두 연출할 수 있다.

#### 4.8 속곳

고려 말의 여성용 속옷의 확실한 형태는 파악하기 어려워, 조선의 단속곳과 형태가 매우 유사한 송(宋)의 여성용 바지 유물을 참고하였다. 참고로 『고려도경』에도 고려 여인들이 넓은 문룡(紋綾) 바지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룡으로 속곳을 만들면 직물의 무게가 무거워 인형의 치마가 충분히 부풀지 않으므로, 그림 14과 같이 좀더 중량이 가볍고 강직한 견직물이 속곳의 재료로 선택되었다. 두터운 저고리 밑에 한 겹을 더 착용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상체에 입는 속옷은 생략되었다.

이 의상 아이템들은 고려말 복식의 특징이 강하면서도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시하여 선택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몽골 스타일인 여성용 담호와 철릭, 연구자가 원하는 문양의 직물 제직 등은 다른 아이템과의 조화가 어렵거나 제작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어 제외되었다. 그러나 고려말 복식에 큰 영향을 끼친 몽골 스타일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원에서 유행했던 탐자 직물처럼 문양을 배치해 직물에 그리거나 이와 유사한 시판직물을 써서 시대특성을 포함시켰다.

그림 15는 표 4에 따라 기본복식, 평상에복(1), 정장에복(1), 정장에복(2)를 착용한 예시 사진이다. 연구자가 개발하여 외부제작한 장신구도 연출에 이용되었으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돌모아(dollmore) 사의 시판가발과 조화시켰다.

대부분의 의상들이 연구자가 의도했던 맞음새와 형태로 완성되었으나, 옥사 직물의 질감이 생각보다 강직해서 대수포 소매부분의 늘어지는 느낌이 다소 부자연스러웠으며, 두터운 감을 이용한 저고리의 소매부분도 부드럽게 접히지 않았다. 따라서 소매부분에는 부드러운 태의 직물

을 이용하는 방법도 권장할 수 있다.

간혹 허리말기 너비와 고름너비 등의 세부 치수와 디테일에서 업체 특유의 제조방식으로 인해 연구자가 의뢰한 사이즈와 다른 사소한 오차가 생기기도 하므로, 연구자와 전문제조업체 간의 더욱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제품을 소량으로 수공제작하는 한복업체의 시스템으로 인해 수주 제작비용이 높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아이템의 단가를 낮추기는 어려웠으며, 특히 단품이 아닌 세트로 판매된다면 고객이 특수계층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고 고전인형의상의 대중화를 도모하려면 기성품 생산 시스템의 개발도 절실하다.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료가 적은 고려말 조선초의 상류층 여성복식을 구체관절인형의상 시제품으로 고증제작하고, 한국복식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상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시기의 복식은 화려한 불교문화, 원 복식과 명 복식과의 융합, 옛 고려 스타일의 부활, 발달한 모시 직조기술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문헌과 회화와 유물자료를 연구하여 위의 특징이 잘 드러난 대수포, 요군, 방령반비, 직배래 대금포, 곡배래 저고리, 직배래 저고리, 치마, 속곳의 총 8점을 구체관절인형의상 세트로 선정하였다. 이 의상들은 세트일 경우에는 색, 재질, 형태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며, 일반 소비자를 위해 단품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상되었다.

다음으로 의상의 퀄리티를 높이고 외부업체의 제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의 고증, 패턴제작, 머슬린 가봉을 거쳐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한 후, 외부 전문제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직물의 종류와 제조방식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의상 샘플을 제작하였다.

현재처럼 구체관절인형용 한복제품이 수공 제작되는 세트 위주로 제시된다면 일반 소비자의 요구에 맞도록 단가를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화상품으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품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다방면의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체계화된 생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자의 의도와 업체에서 제작된 샘플 간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더욱 활발한 접촉이 필수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추후 연구주제로 제시할 수 있다.

의상과 함께 장신구와 가발 류도 개발되었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의상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일반 소비자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의상 샘플과 시

관 가발을 조합하는 예시를 제시하였다. 장신구와 소품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속논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 References

[1] Soo-Hyun Kwon and Soon-Che Kang, "The Revival of Ball Joint Doll's Goguryeo Costume", collected papers of Human Ecology Research, 28(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p.109-126, 2008.

[2] Hae-Yool Choi, "A Study on the Design for a Ball Jointed Doll's Costume with the Ladies' Vogue of Bok-yo in the Early-middl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33, No.9, 2009.

[3] Sun-Mi Hwang, "The fashion preference and tastes of youth owners toward ball jointed doll", a master's thesis, Yonsei Graduate School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 pp.1-101, 2007.

[4] Jong-Seo Kim(1452), "Goryeosajeolyo", I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2004), "(new edition) Goryeosajeolyo: ha", p. 605, Seoul: Shinseowon, 2004.

[5] Ibid., pp. 724-725.

[6] Hae-Yool Choi, op. cit., p.1387, 2009.

[7] Dollmore, "Haram", 2010.10.31, -http://www.dollmore.com

[8] Iple house, "Ewha". 2011.06.15, -http://iplehouse.com

[9] Bang-sil Joo, "Princess Noguk", 2009.12.31, -http://www.dollhanbok.com

[10] Center for Art Studies, "The Buddhist Painting of Koryo dynasty", p. 140. Seoul: Sigongsa, 1997.

[11] In-Ji Jeong(1451), "Goryeosa", Gojeonyeongusil (2002), "(new edition) Goryeosa: Goryeosa 11", pp. 602-603, Seoul: Shin seo won, 2002.

[12] Geung Seo(1124), "Seonwhabongsa Goryeodo-kyoung", Dong-Wom Jo(2005), "Goryeodokyoung", pp. 257-260. Seoul : Hwangsojari, 2005.

[13] Jong-Seo Kim (1452), I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2004), op. cit., p. 135. 2004.

[14] Yeon-Ok Shim, "Ji-shim-gui-myeong-rae: patterns of fabric from statue of the Buddha", p. 15, Sooduksa Geanyoksungbokwan, 2004.

[15] Ibid., p. 20, 2004.

[16] In-Ji Jeong (1451), Gojeonyeongusil(2002), op.cit., pp. 594-595, 2002.

[17] Dong-ik Jang, "Yuandae ryeosa jaryojiprok", p.91,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7.

[18] Sha-Na Chang(editor-in-chief), "Corpus of Chinese fabric, embroidery, and finery 4", p. 209, Tenjin:

Tenjin renmin-meishu-chubanshe, 2004.

[19] Feng Zhao and Lin Jin(editor-in-chief), "Gold/Silk/Blue and White Porcelain-Fascinating Arts of Marco Polo Era", p. 81, Hongkong: ISAT/Costume Squad LTD, 2005.

[20] Sha Na Chang(editor-in-chief), op.cit., p.236, 2004.

[21] Ibid., p. 237.

[22] Feng Zhao and Lin Jin(editor-in-chief), op. cit., p. 60, 2005

[23] Hae-Yool Choi, "The flowers of Nomads-The flow of Mongolian Women's Costumes", p.121-122, Seoul: Minsokwon, 2008.

[24] Won-Jin Lee, The portrait of Hayeon couple, Min-Gil Hong and Hwi-Joon Ahn, "Historical and intellectual figure painting in Joseon", p.306, Seoul: Hakgojae, 2009.

[25] Ibid., p. 303.

[26] Gyu-Bo Lee, "Dongguk-isangguk-jeonjib 6:Goyoolsi", I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2011.01.03,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

[27] Gyu-Bo Lee, "Dongguk-isangguk-jeonjib 2: Goyoolsi:", 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2011.01.03,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

[28] Kyu-Soon Choi and Ming-Xin Bao, "A Study on Moja of Jilson in Yuan Dynasty", Boksik, Vol. 56, No.2, pp. 129-130. 2006.

[29] Soo-Hyun Kwon and Soon-Che Kang, op. cit.,pp. 113, 117. 2008.

[30] Moon-Sook Kim, "The Changes of the costume of Koryo dynasty during the period of Mongol dominance", a doctoral thesis,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44-45, 2000.

[31] Ibid., pp. 79-86.

### 최 정(Jeong, Choi)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전공(가정학 석사)
- 2001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전공(이학박사)
- 2003년 3월 ~ 2005년 2월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entre for Korean Research) 연구원
- 2005년 12월 ~ 2007년 3월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7년 4월 ~ 현재 :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동양복식사, 고증디자인, 문화상품디자인